



2019년에 예상되는 호주인의 소비패턴

자카르타지사

부채증가에도 긍정적 소비행태 유지

-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2018년 평균 가구소득면에서 국가순위 4위를 차지했다. UN에 따르면 호주는 부, 보건품질, 사회적 만족, 건강, 기대수명,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자유 등의 요소에서 150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.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'더 나은 삶의 지수'에 따르면 호주인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7.3(OECD 평균 6.5)이었으며, Medibank Better Health Index는 호주인의 71%가 '미래에 대해 낙관적'이라고 밝히고 있다.
- 높은 수준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출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, 2018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구부채가 많은 국가에 해당되기도 했다. 가구당 평균 AUD 217,968(담보대출 포함, 약 1억 7천만 원)이며, 교육비대출은 2013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뛰었다. 최근 들어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저렴한 소

비재 및 할인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고급 제품 및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.

이민자 급증하며 다문화 사회 형성

- 호주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2016년 호주 통계청(ABS)에 따르면 인구의 25%가 외국 태생이며 거의 절반(49%)이 1세대 또는 2세대 이민자이다. 호주 태생 호주인은 전체 인구의 67%이며 이는 2001년 88%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로 아시아계 이민자가 유럽계 이민자를 추월한 상태다.
- 2011년 이후 중국에서 191,000명, 인도에서 163,000명의 이주민이 유입되었으며, 2016년 기준 이민자 출신 비율은 영국(15%), 뉴질랜드(8%), 중국(8%), 인도(7%), 필리핀(4%) 순이다. 전체적으로 호주의 이민자들은 젊고 숙련되어 있으며, 호주 사회에 잘 흡수되고 있다. 유엔의 글로벌 행복보고서(Global Happiness Report)에 따르

면 이민자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- 이민자들은 도시화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, 문화적 융합과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켰고 다양한 요리, 타민족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계속 창출하고 있다. 2018년 6월, 호주에서 중국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We-Chat이 월간 활성사용자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.

소비자들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확산

-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느낌에도 불구하고 호주인의 최근 소비행태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. 호주 소비자들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, 유기농제품이나 윤리적으로 거래된 제품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.
- 2017년 세계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%는 로컬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0%는 로컬매장에서 쇼핑을 시도한다고 응답하고 있다.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37%의 응답자가 개방사육제품 구매에 관심이 있으며, 26%는 개방사육제품에 더 많은 금액을 기꺼이 지불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. 포장 식품을 구매할 때 응답자 중 21%가 재활용 포장식품 구매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
디지털 미디어 소비 급증

- 2017년 기준 호주인의 91%가 인터넷 사용자이고 84%는 스마트 폰을 사용해 인터넷에 접속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활동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. 2017년 글로벌 소비자트렌드(GCT)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%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PC에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, 60%는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.

- 2018년 6월 Vivid Social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0%의 소비자가 Facebook 사용자였으며 이 가운데 25~39세가 35%로 가장 많았고 40~55세(24%), 18-25세(30%)가 뒤를 이었다. 또 다른 주요 플랫폼으로는 Youtube(1천500만 명), Instagram(9백만 명), Snapchat(630만 명), WordPress.com(570만 명) 및 Twitter(470만 명) 순이다.

건강 지향에도 불구하고 비만 증가

-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호주인의 86%가 건강한 식이요법을 따르려 노력하지만 비만은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. 2017년 기준 인구의 31%가 비만으로 분류되었고(2012년 28%) 멜버른 디킨대학교(Deakin University)는 20%의 미취학 어린이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.
- 2017년 글로벌 소비자트렌드(GCT)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%가 체중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식사 모니터링을 한다고 응답했다.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생활방식이 정적으로 변하고 덜 활동적인 직업군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가활동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1%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을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.
- 최근 호주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다문화 사회, 건강, 친환경, 온라인 시장 확대로 볼 수 있는데, 이는 우리 기업들이 호주 식음료 시장에 무엇을 들고 진출해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해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.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로 고품질·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만큼 현지 트렌드에 맞는 판매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.